

# 데스크시각

오 주 승



오늘(11일) 오후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여수에 온다. BIE 실사단은 지난 9일 한국에 도착해 한국 정부의 2012년 박람회 유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수에서 현지 실사(實査) 활동을 벌이게 된다.

세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BIE는 지난 2002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201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실사를 했다. 당시에도 여수시민들은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유치 의지를 확인했다. 5년 전과 상황은 꼭 같다. 다른 것은 5년 전이 첫 초선이었다면, 지금은 절치부심의 재도전이란 점이다.

## 여수의 눈물, 다시 없어야

2002년 현지 실사로부터 9개월 뒤인 2002년 12월 3일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 모나코에서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총회가 열렸다. 바닷가에 자리잡은 회

의장, 그리말디 포럼은 유치전에 나선 한국, 중국,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 등 5개국의 외교 전장터였다. 모스크바는 냉전 종식의 영웅 고르바초프를, 상하이는 세계 외교계의 여결 우의(吳儀)를 열렬히 환영했다. 한마디로 '아노미', 그 자체였다. 절망을 딛고 여수가 다시 시작했다. 2012년 박람회 유치에 제도전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은 어떤가. 우선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5년 전과 너무

무 다했다. 대통령선거로 인해 정국은 혼돈 상태다. 개최지 결정 투표가 열리는 연말은 대통령선거 정국의 정점이다. 레이싱이 예민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탈선을 부추겨 청소년의 정신세계가 날로 황폐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음란물에 청소년들의 성 도덕 기반이 붕괴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들의 심성이 황폐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터넷 중독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를 치유할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중독된 청소년들이

결과를 여수의 완패. 여수는 3차례에 걸친 예선투표를 거쳐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상하이에게 34대 54로 졌다. 한국 대표단은 "차이나" "상하이"를 연호하는 중국 대표단을 뒤로 하고 분투를 삼켜야 했다. 무거운 침묵, 처연한 상실감이 대표단을 덮었다. 낭보를 기대하던 여수도 눈물에 젖었다. 한마디로 '아노미', 그 자체였다. 절망을 딛고 여수가 다시 시작했다. 2012년 박람회 유치에 제도전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은 어떤가. 우선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5년 전과 너무

무 다했다. 대통령선거로 인해 정국은 혼돈 상태다. 개최지 결정 투표가 열리는 연말은 대통령선거 정국의 정점이다. 레이싱이 예민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탈선을 부추겨 청소년의 정신세계가 날로 황폐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음란물에 청소년들의 성 도덕 기반이 붕괴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들의 심성이 황폐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터넷 중독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를 치유할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중독된 청소년들이

## 2002년, 그리고 2007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박람회 올림피아나 월드컵과 달리 정부 대표의 투표에 의해 개최지가 결정된다. 박람회 유치는 국력의 경연장이나 다름 없다.

## 정부 의지가 유치 결정

박람회의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첫 박람회인 1851년 런던박람회는 산업혁명의 전신장이었다.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는 신생제국 미국의 발현을 예고했다. 20세기를 다른 역사서 '진보와 어반'을 쓴 영국의 정치가이자 학자 클라리브 폰팅은 책의 첫 부분을 1900년 파리박람회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20세기 초 파리가 세계의 중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박람회를 상하이가 유치한 것도 중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결국 박람회 유치의 승패는 정부에 달렸다. 정부는 인지도와 SOC 측면에서 떨어지는 여수를 위한 그랜드 플랜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 박람회 유치, 후 SOC 확충'이란 어정쩡한 약속으로 BIE 회원국을 알마나 설득시키지 못한다. 외교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외교관들의 애국심과 프로의식은 필수적이다. 다시 여수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 시 설

## BIE 여수 실사단에 감동을 안겨주자

세계박람회기구 사무국(BIE) 실사단에 대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이 '좋은 시작(Good Start)'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실사단이 10일 오전과 오후 서울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조짐이 아닐 수 없다.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오는 13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총 6차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14개 항목, 61개 세부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실사단의 평가 결과는 BIE총회 투표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남아 있는 프리젠테이션에도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사단에게 프리젠테이션이 이번 실사의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여수 현지 실사라 할 수 있다. 실사단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여수의

분위기와 주변 여건은 실사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사단은 이동도와 박람회 부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현황 등을 둘러보면서 박람회 유치 능력을 점검하게 된다. 국민적 유치 열기는 이미 확인되었다.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참가자가 목표를 훨씬 초과해 145만여명에 달했다. 서명에는 전국의 일반시민과 기관, 사회단체, 기업,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전 국민들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성원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유치 열기를 모아 여수를 방문하는 실사단에겐 진한 감동을 안겨 주는 일이다. 실사단이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개최국과 개최후보지 주민의 유치 의지다. 여수가 후보지 3곳중 첫번째로 실사를 받는 만큼 시·도민들의 적극 참여로 기선을 제압해야 할 것이다. 유치 실패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 지방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폭 확대해야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 중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10일 광주·전남중소기업협에서 중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협력 회복을 위한 현장 대책회의'에서 중기 관계자들은 자금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만큼 자금난이 허락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 중기의 자금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 중기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23%나 줄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국비 출연금마저 중단될 예정이

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4년부터 중기의 신규지원 자금이 중단돼 중기자금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감소는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 중기의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를 분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로 지방 중기의 타격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자금난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론이다.

정부는 지방 중기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중기지원책 가운데 상당수가 탁상행정에서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정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지방 중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예전에 비해 젊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은퇴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산임에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무색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에 진입했다. 2019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은 더 앞당겨질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농촌지역인 전남의 경우 상당수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업이나 사회 각 부분의 정년은 그대로 있거나 짧아지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젊은 노인'들을 활용하는 근본방안 마련 보다는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인적자원이 갈수록 있음은 물론 은퇴 후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다. 대한상사의 이런 노령인력 활용방안

으로 최근 '직무급 임금제'를 제시,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이 고령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급급 임금제' 대신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가치와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기업들이

인력을 풀릴 때 장기 근속한 고령인력 위주로 고용조정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직무와 생산성이 일치될 경우 숙련도가 높은 장기 근속자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한상사의 이러한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고령인력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도 제시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젊은 노인'의 활용이야말로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직무급 임금제



## 기 고

나 훈



현재 국내 농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개방 폭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인들의 많은 희생과 봉사 속에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지역사회발전의 기틀을 제공해 준 농업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행정)와 지역기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역할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다 보니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식주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물론 기업체 차원의 농산물 구매 및 소비확대로 다소 지역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유통되는 쌀 브랜드는 약 10여종에 달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차별화라든지 브랜드 신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양곡포장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시한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생산자 임의로 표시사항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의무항목조차 표기되지 않은 양곡관리 위반제품이 15.8%에 이르고, 품질 등급이 특등급으로 표시된 제품이 92%나 되는 등 신뢰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기업·농민·지자체 상생의 길 있다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기업체의 이별 분산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조직적 규모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다. 따라서 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기업은 대규모 쌀 소비처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난해 쌀 협상을 통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10년 후 농민들의 불안감과 충격만 더욱 커질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체간 그리고 농업인들이 상생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송정농협조합장>

이는 결국 영세한 농민들에 의해 개별 분산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조직적 규모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다. 따라서 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기업은 대규모 쌀 소비처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난해 쌀 협상을 통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10년 후 농민들의 불안감과 충격만 더욱 커질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체간 그리고 농업인들이 상생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송정농협조합장>

## 환경오염 일으키는 의약품 올바르게 폐기처분해야

일반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 그대로 버려지는 사례가 많아 적절히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에서는 가장 흔한 감기약부터 두통약, 복용약, 소화제, 드링크류 등 무수히 많은 일반의약품이 그대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약품 중에는 드링크류와 일반 물약, 가루약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그대로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하천과 강으로 흘러들어가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최진미·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사람이 먹는 약이다 보니 양도 적고 별도 표시도 안 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도 제대로 싸서 올바르게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외국처럼 제약회사들도 판매한 약들의 수거와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는 의약품을 무심코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제조회사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 <최진미·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 은펜칼럼

송 민 석



최근 '컴퓨터 황제' 빌게이츠 회장이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들여다보는 지 부모가 알고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그는 10살짜리 딸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평일에는 하루 45분, 주말에는 1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터넷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그 부작용도 함께 알고 있다. 특히 음란물은 청소년기의 왕성한 성

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을 해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인터넷상에 음란, 자살, 살인 등 반인륜적 사이트가 난립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탈선을 부추겨 청소년의 정신세계가 날로 황폐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음란물에 청소년들의 성 도덕 기반이 붕괴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들의 심성이 황폐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터넷 중독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를 치유할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여 대부분의 중독된 청소년들이

## 청소년 병들게하는 인터넷의 그늘

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어린 중학생들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올려 우리를 경악케 하더니 최근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청소년들의 성 모방 범죄가 연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98%, 전 국민의 67%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청소년의 20%가 잠재적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 인터넷 중독이란 단순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병적인 집착을 보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로 게임, 채팅, 음란물, 인터넷 도박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접속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인터넷 윤리나 예의가 실종된다면 그것

음란물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사이트나 자살사이트의 접속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볼 때 사후 대책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도 정확한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사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려 놓을 청소년들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계도 심각인정하여 인터넷 문화에 새롭게 접근하여 청소년들에게 네티켓을 비롯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하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교육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여천고등학교장·2006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농민들도 문화생활 누릴 수 있는 기회 많아졌으면...

도시는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고급 초대형 영화관에 각종 유선채널, 인터넷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DVD까지 없게 없다. 하지만 농촌은 그렇게 하나도 없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청이나 문화원 같은데서 영사기를 들고 다니며 정기적으로 영화상영을 해왔다. 이날 농촌은 잔치 분위기가었고 농민들이 한자리 모여서 막걸리도 마시며 피로를 푸는 날이어서 공동체를 사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어찌된건지 농촌마을에 영

화 상영조차 안해준다. 전남도 지역 대부분의 농촌에 시군에서 지원해줘 요즘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농촌정책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전남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각 시청 군청, 또는 각 시군의 문화원같은데서 영사기와 필름을 구입해 농민들에게 영화상영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영화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문화적 장치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